

# “미래 전략 핵심”...순천시, 그린바이오 산업 선점 나선다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 용역 착수  
관계부서 협업 강화 청사진 마련  
특화자원 활용 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민 중심 소득 창출 모델 개발

순천시가 지역의 미래 3대 경제축 중 하나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행정 내부의 낡은 부서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본격적인 융복합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미생물센터에서 그린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관계 부서 간 협업 강화를 도모하는 ‘협력데이블’을 동시에 개최하고 10년 대계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번 회의는 순천형 그린바이오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미래산업국을 필두로 문화관광국, 청년교육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비롯해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등 시 산하 핵심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가해 열린 논의를 펼쳤다.

이는 부서 이기주의를 탈피해 미래산업국이 산업의 큰 틀을 짜면, 문화관광국과 농정혁신국이 체험·생산 기반을 연계하고 청년교육국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식의 입체적인 행정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먼저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착수보고회에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굵직한 핵심 연구 과제와 전략적 수행 계획이 제시됐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단계별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부터 대규모 그린바이오 거점 단지 유치 전략, 연관 앵커기업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순천시가 유관기관과 손잡고 그린바이오 산업 선점을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사진은 최근 순천시미생물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순천시 제공>

로드맵 수립 등 순천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심도 있게 보고됐다.

이어 진행된 ‘협력데이블’에서는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서 간 융복합 과제들이 다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앵커기업 연계 체험 관광 및 치유산업 발굴 ▲지역민 수혜 중심의 실

질적 소득 창출 모델 개발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린바이오 자·산·학·연(지자체·산업계·학계·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꼽혔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과 협력데이블 가동을 기점으로 그린바이오를 농업, 관광, 치유, 교육, 유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융복합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신규 공모사업 공동 대응과 기업 수요조사 등 단계별 실행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린바이오 산업은 단순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넘어 순천의 전반적인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릴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며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긴밀한 행정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판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 고흥군, 상습 침수 녹동지구 재해예방사업 ‘속도’

보상협의회 개최...생명·재산 보호  
공정 보상 절차·이주 방안 등 확립

고흥군이 상습 침수 구역인 녹동지구의 재해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주민 소통 창구인 보상협의회를 가동하며 투명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도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도양읍 용정리와 봉암리 일원 녹동

천 주변의 상습적인 범람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프로젝트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축제 및 보축 2천775m, 교량 재가설 8개소, 분기수로 정비 506m, 천변 저류지 2개소 조성, 예·경보시설 설치 등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협의회에는 군 관계자와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해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안을 의결하고 사업 추진 계획과 보상 절차, 이주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협의회를 공식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해 보상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이 항

후 감정평가와 보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양국진 고흥 부군수는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잠재적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 안전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협의회 개최를 기점으로 이달 중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보상 협의를 진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성학 기자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특별전인 ‘보성 도예가의 생활차도구 전’이 오는 6월14일까지 한국차박물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이학수 도예가의 작품 설명하는 모습. <보성군 제공>

# 보성 다향대축제 특별전 ‘생활차도구展’ 개막

내달 14일까지 한국차박물관서

보성군은 6일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특별전인 ‘보성 도예가의 생활차도구 전’이 오는 6월14일까지 한국차박물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전은 지역 도예가들의 탐과 정성이 깃든 찻그릇을 통해 보성 차(茶)의 예술적 가치

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보성 찻그릇, 일상의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예술로서 찻그릇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조명한다.

전시에는 이학수, 박노연, 김기찬, 박익주, 이정운, 최진훈 등 지역을 대표하는 도예가들이 참여해 실용성과 미학을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

낸 작품 18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축제 기간 운영되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상 경험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보성 차는 예술과 결합할 때 그 가치가 한층 더 깊어진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보성 찻그릇 고유의 매력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여유롭게 차 문화를 즐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 곡성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출선수범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등

곡성군은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앞장서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에 돌입했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친환경 청사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일상 속 자원 절약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청사 내 개인용 텀블러 및 다회용 컵 사용 의무화, 각종 회의·행사 시 다회용기 적극 활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의 청사 반입 자제 및 금지, 민원인 전용 다회용 컵 비치 등이다.

군은 이번 시책이 일회성 캠페인에 머물지 않도록 강력한 사후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매월 1회 이상 부서별 1회용품 사용 여부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며, 이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부서원들의 책임 있는 자발적 실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군민들의 친환경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자발적인 생활 속 동참으로 이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여수시, 도내 첫 ‘스마트 모기 방제체계’ 구축

질병청 공모...섬박람회장 등 7곳 설치

여수시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첨단 모기 방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 주관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하고, 광주·전남 최초로 모기감시장비(DMS)를 활용한 방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사진>

DMS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감염병 매개의 주범인 암모기를 유인·포집한 뒤 개체 수를 자동으로 계측하는 스마트 감시 시스템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무선통신으로 전송돼 실시간 밀도 분석에 활용된다.

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를 포함해 총 7곳에 장비 설치를 마치고 운영에 돌입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생 시기와 지역별 밀도를 정밀 분석해, 모기가 다수 발생하는 곳에만 선택적·집중적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광주·전남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감시 체계를 통해 매개 모기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화순군, ‘청년CEO 창농스쿨’ 교육생 모집

오는 31일까지...온라인 판로 개척 등

화순군은 6일 “지역 청년농업인의 전문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청년CEO 창농스쿨’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만 18세에서 49세까지 화순군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케팅 기본 개념 이해와 농산물 판매를 위한 맞춤형 전략 설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브랜드 로고 및 패키지 디자인, 스마트 스토어 상세페이지 제작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희망자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은순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농업인이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해 급변하는 농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담양군 ‘담빛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대성황

가족 단위 1천500여명 북적

담양군은 6일 “전날 제2회 담양대나무축제 및 어린이날을 맞아 개최한 ‘제4회 담빛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 1천500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18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신비로운 미술 공연과 인기캐릭터 ‘베베핀’ 콘서트가 펼쳐져 현장을 찾은 가족단위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오후에는 서울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실력파 청소년 댄스 10개 팀의 열띤 경연대회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함께 특별 초청 팀 ‘노립(NO lip)’의 화려한 퍼포먼스, 퓨전국악, 버블공연이 어우러져 축제장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영예의 대상은 ‘옥자지킴’ 팀이 차지했다.

박은희 향촌복지과장은 “대나무축제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많은 가족이 소중한 추억을 쌓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